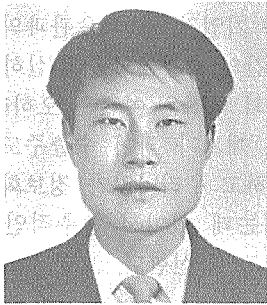


'91년 전자산업의 수급동향



조 규 재
본회 조사통계과

1. 머리말

지난해 우리 전자산업은 세계적 경기침체와 선진국의 보호무역 강화, 동남아 국가들의 저임을 무기로한 저가공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선진 기술도입에 대한 로열티 지급의 급증, 유통시장 개방확대에 의한 내수경기부진 등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시련이 많았던 한해였다. 이에 따라 자금난 등으로 경영압박을 극복하지

못한 여러 중견·중소기업의 도산이 속출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자산업 수출이 12.2%의 두자리대 성장을 시현했고 단일 업종으로는 처음으로 수출 200억불(전자제품포함)을 달성하여 우리나라 전 산업중 수출 1위 산업의 위치를 굳히는 한해였다.

본고에서는 '91년의 전자산업에 대한 생산, 수출, 내수 등의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2. '91년 전자산업 수급동향

1) 생산동향

'91년 전자산업의 생산은 수출 및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90년 대비 12.7% 증가한 23조 7,000 억원으로 잠정 집계 되었으며 각 부문별로는 전자부품이 반도체, CDP 등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19.7%의 비교적 높은 신장률을 보였고 산업용기기는 컴퓨터, 전화기의 수출, 내수부진으로 4.7% 증가에 그쳤다. 또한 가정용기기는 음향기기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으나 CTV, VTR, MWO 등 주력제품의 수출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해 전년대비 9.2%의 성장을 보였다.

가. 가정용기기의 동향

가정용기기 중 음향기기는 EC 등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이 부진하고 과소비 억제 등으로 내수시장 또한 위축되어 마이너스 성장에 그치는 부진함을 보였다. 그러나 VTR은 EC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대비 42.3%의 높은 증가를 보여 생산은 14.4%의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C-TV도 일본으로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18.1%의 두자리수 성장을 나타냈다. 또한 전자렌지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EC지역과 북방권 수출이 큰 폭 증가해 17.4%의 비교

<주요품목 생산동향>

(단위: 억원)

구 분	'90	'91	증감률(%)
전자산업계	210,356	237,153	12.7
가정용기기	72,647	79,348	9.2
C - T V	14,354	16,959	18.1
V T R	11,095	12,690	14.4
음향기기	18,187	18,085	-0.6
전자렌지	4,864	5,710	17.4
산업용기기	46,597	48,764	4.7
컴퓨터및주변기기	22,650	23,737	4.8
전화기	4,046	4,496	11.1
F A X	1,687	2,055	21.8
계측기	650	634	-2.5
전자부품	91,111	109,041	19.7
반도체	36,134	45,710	26.5
C P T	8,894	10,708	20.4
자기헤드	4,738	4,990	5.3
자기테이프	7,900	8,516	7.8
P C B	2,756	2,958	7.3
스피커	1,671	1,938	16.0

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나. 산업용기기의 동향

산업용기기중 비중이 가장 큰 컴퓨터는 수출과 내수시장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한 2조 3,737억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전화기는 큰 폭의 내수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17.8% 감소로 생산은 11.1%의 신장을 보였고 계측기도 내수 부진 등으로 2.5%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다.

그러나 팩시밀리는 수출이 64.9%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생산도 21.8% 증가해 성장가능성이 큰 품목으로 나타났다.

다. 전자부품의 동향

지난해 전자산업의 체면을 그나마 유지해 준 분야는 역시 전자부품이라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반도체는 26.5% 증가한 4조 5,710억원을 생산했는데 이는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EC 등지로의 높은 수출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CP T도 '90년대비 20.4%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자기헤드는 5.3%의 낮은 신장세를 보였으며 PCB는 수출이 40% 이상의 큰폭 증가를

시현했으나 내수가 골깊은 감소를 보여 생산은 7.3%의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 수출동향

'91년도 전자산업의 수출은 전반적인 경기 위축과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동남아 국가들의 저가공세 등으로 미국 및 EC지역으로의 수출이 각각 10.0%, 6.8%의 성장에 그친 반면 기타 지역에서 높은 수출성장률을 이루어 12.2%의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단일업종으로는 처음으로 수출 200억불을 달성(전기제품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산업중 수출 1위 산업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했다.

가. 가정용기기의 동향

가정용기기 중 음향기기, 특히 카스테레오 등의 부진으로 '90년대비 9.1%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수출 주종품인 C-TV의 11.6%, EC지역으로는 19.6% 마이너스 증가를 보였지만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42.3%의 높은 증가를 보인 VTR이 12.9%의 비교적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주요품목 수출동향>

(단위: 백만불)

구 분	'90	'91	증감률(%)
전자산업계	17,214	19,307	12.2
가정용기기	5,529	5,817	5.2
C - T V	1,348	1,505	11.6
V T R	1,140	1,287	12.9
음향기기	1,737	1,579	-9.1
전자렌지	534	639	19.7
산업용기기	3,481	3,876	11.3
컴퓨터및주변기기	1,984	2,120	6.9
전화기	331	272	-17.8
F A X	94	155	64.9
계측기	81	88	8.6
전자부품	8,204	9,614	17.2
반도체	4,538	5,654	24.6
C P T	708	895	26.4
자기헤드	610	558	-8.5
자기테이프	871	910	4.5
P C B	79	112	41.8
스피커	195	207	6.2

또한 전자렌지는 '90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19.7%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미국시장으로의 수출이 14.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EC지역으로의 수출이 56.2%의 급격한 신장률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 산업용기기의 동향

가정용으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 팩시밀리는 전년대비 64.9%라는 놀랄만한 성장을 보였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미국·일본제품에 비해 가격, 품질면에서 열위에 있고 대만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전년대비 6.9%의 저조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전화기는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수요 한계 등으로 17.8%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으며 계측기는 '90년 대비 8.6%의 낮은 신장률을 보이는 등 산업용기기 전체는 11.3%의 완만한 성장을 나타냈다.

다. 전자부품의 동향

수출비중으로 볼 때 전자 전체의 29% 부품의 59%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수출은 미국, EC 시장에서 호조를 보여 전년대비 24.6%의 큰 폭 성장을 보였고 CPT도 '90년대비 26.4%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또한 PCB도 41.8%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으나 자기헤드는 8.5%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으며 스피커, 자기테이프도 각각 6.2%, 4.5%의 한자리수 성장에 머물렀다. 따라서 전자부품 수출은 전년대비 17.2% 증가한 96억 1,400만불을 달성할 것으로 나타났다.

라. 해외 수입규제 현황

우리제품의 수출이 어려운 것은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에서의 열세도 부인할 수 없지만 미국, EC 등 주요 수출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주요 제품에 대한 미국, EC의 수입규제 현황과 대응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마. 주요제품의 수출경쟁력 현황

우리 전자제품 총수출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시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서서 재고 누적 및 동남아 국가의 저가공세로 인하여 수출이 둔화를 보였으며 단일국가로 미국 다음인 대일수출은 '91년에 21%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

〈미국·EC의 수입규제 현황〉

(표 3.6 현재)

지역	품목	형태	대응내용
미국	C-TV	AD	○8차 연례제심 예비판정(0.83%~16.57%)
	CPT	AD	○1차 연례제심 최종판정(0.12%~0.91%) ○1차 연례제심 최종판정 수정(1.91%~0.12%)
	Key phone System	AD	○CIT 판정(ITC 최종판정 지지) ○1차 연례제심 최종판정(0.02%)
EC	VCR	AD (UT)	○Price Undertaking 제심 신청 (FOB 198 ECU→163 ECU) ○추가자료 제출
	C-TV	AD	○Residual Duty 인하 실시 ○Residual Duty(19.0%~10.5%) 인하 관보 발표
	CDP	AD	○Anti-Absorption조사 개시 ○업체 실사
	Audio Tape	AD	○확정 판정(0~3.8%)
	Video Tape	AD	○확정 판정(0~9.2%)
	MWO	차율규제	○CECED 협력회의(91:1,880천대)
	CPT	"	○EECA협력회의 ○EECA협력회의(92:1,280천개)
	Car Radio	AD	○업체(18개사) 실사 ○잠정판정(0.25~38.3%)
DRAM	AD	○답변서, EC집행위 제출 ○업체실사	

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일무역역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우리 전자산업의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주요 제품별 경쟁력 현황을 보면 C-TV의 경우 일본과 비교해 품질·가격면에서 열세에 있으며 멕시코 제품과 경쟁을 벌이는 상태이고 VTR 역시 일본에 비해 절대 열세에 있으며 전자렌지는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품질·가격면에서 다소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는 일본, 미국에 절대 열세이며 대만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휴대용전화기는 OEM위주로 진출하고 있으나 가격경쟁력에서 일본, 홍콩에 비해 열세에 있으며, CDP는 일본이 전체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가격경쟁력에 바탕을 둔 OEM수출을

<우리 상품의 경쟁력 현황>

구분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경쟁현황	주요경쟁국	
	우위	열위	우위	열위		경쟁우위국	경합국
C-TV	○		○		절대가격은 소폭 우위이나 품질, 브랜드 등을 종합한 경쟁력 열위	일본	멕시코
VCR	○		○		TV와 유사한 상황. 미국내 제조 소진으로 수출호조	일본	
전자렌지	○		○		일본의 동남아생산품 진출 확대		일본 태국 싱가폴
휴대용 컴퓨터 PC포함	○		○		미국내 수요증가 추세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증가	일본	대만
캠코더	○		○		일본제품이 시장석권. 저가품 위주로 진출시작단계	일본	
휴대용 전화기	○		○		OEM위주진출. 문제점노출	일본	홍콩
CDP	○		○		일본전체시장 장악. 가격 경쟁력비탕 OEM수출증가	일본	

<주요품목 시판동향>

(단위 : 억원)

구분	'90	'91	증감률(%)
전자산업계	60,098	64,039	6.6
가정용기기	29,963	34,240	14.3
C - T V	4,609	5,244	13.8
V T R	2,702	3,175	17.5
음향기기	5,888	6,382	8.4
전자렌지	1,009	1,130	12.0
산업용기기	20,010	18,108	-9.5
컴퓨터및주변기기	8,419	8,680	3.1
전화기	1,693	2,210	30.5
F A X	1,017	875	-14.0
계측기기	162	150	-7.4
전자부품	10,126	11,691	15.5
반도체	1,613	2,100	30.2
C P T	492	572	16.3
자기헤드	13	14	7.7
자기테이프	1,127	1,230	9.1
P C B	610	410	-32.8
스피커	290	350	20.7

점차 증가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주요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내수동향

전년도 전자제품 내수시장은 유통시장 개방 확대와 과소비억제 분위기가 어우러져 전년대비 6.6% 증가에 그쳤다.

특히 산업용기기는 팩시밀리·계측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도 3.1%의 저조한 성장을 보여 9.5% 감소하는 부진함을 보였다. 그러나 가정용기기는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변화된 기호에 맞게 C-TV, VTR, MWO 등이 대형화, 고급화 되어가는 추세를 나타내 성장률도 14.3%의 두자리수를 유지하여 비교적 호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자부품은 반도체, CPT가 각각 30.2%, 16.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PCB는 컴퓨터 등의 부진으로 32.8%의 감소를 보였으며 자기헤드, 자기테이프도 각각 7.7%, 9.1%의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4) 설비투자동향 및 전망

가. 부문별 동향

지난해 전자산업의 설비투자는 25조 800억원이 투자되어 전년대비 19.8%의 증가율을 보였고 부문별로는 산업용기기가 컴퓨터, 전화기 등의 수출은 부진하였으나 FAX, 교환기 등의 수출증가와 내수호조로 생산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전년대비 35.9% 증가한 6,45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용기기, 전자부품은 전년대비 각각 15.8%, 15.0%의 증가율을 보여 산업용기기보다는 다소 부진함을 보였다.

그러나 금년에는 전자산업의 수출이 전년에 비해 다소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과소비억제 및 대체수요의 감소에 따른 내수위축 등으로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는 산업용기기가 1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정용기기는 내수위축과 수출부진 등으로 생산활동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어 6.4%의 다소 낮은 증가가 예상되며, 전자부품은 반도체, CPT 등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12.8%의 증가세

<전자산업 부문별 설비투자 동향>

(단위 : 억원, %)

	설비투자액			증감률 (%)	
	1990	1991	1992	91/90	92/91
전자산업계	21,541	25,808	29,024	19.8	12.5
산업용	4,750	6,457	7,619	35.9	18.0
가정용	5,721	6,623	7,045	15.8	6.4
전자부품	11,070	12,728	14,360	15.0	12.8

자료 : 산업은행

가 예상된다.

나. 동기별 동향

전자산업의 설비투자를 투자동기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설비능력의 증가를 위한 투자가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1년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90년 57.2% 보다 다소 낮아진 면을 볼 수 있는데 이는 '89년 이후 수출 등 전반적인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업계에서 설비확장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은 '90년 13.0%에서 '91년 13.4%로 제고되었고 '92년에는 15.9%로 예상되어 업계가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장자동화에 대한 투자도 '90년 9.3%에서 '91년 12.1%, '92년 12.7%로 비중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높은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여 전공정의 자동화·불량률 제로의 완전 무인화 라인 설치 등으로 확대되어 업계의 공장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3. 맺음말

<전자산업 동기별 설비투자 동향>

(단위 : 억원, %)

	설비투자액			증감률 (%)	
	1990	1991	1992	91/90	92/91
전자산업계	21,541	25,808	29,024	19.8	12.5
설비능력증가	12,318	13,629	15,337	10.6	12.5
신제품생산	7,535	7,549	8,607	0.2	14.0
설비확장	4,783	6,080	6,730	27.1	10.7
국내수요대비	4,841	4,647	5,265	-4.0	13.3
수출수요대비	7,477	8,982	10,072	20.1	12.1
합리화	4,325	6,203	6,750	43.4	8.8
유지보수	1,914	2,468	2,308	28.9	-6.5
자동화·성력화	2,003	3,132	3,687	56.4	17.7
에너지절약	408	603	755	47.8	25.2
공해방지	417	570	591	36.7	3.7
연구개발	2,807	3,451	4,626	22.9	34.0
기타	1,674	1,955	1,720	16.8	-12.0

자료 : 산업은행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1년 우리 전자산업의 경기는 위축된 국내의 경제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을 시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전자산업은 질적인 성장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진기술 의존도가 너무 높고 노동 집약적인 조립 위주의 산업으로는 이제 더이상 채산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공장자동화에 대한 투자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정보화 사회의 확산으로 산업화 사회의 전자·정보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노력이 각별히 요구된다.